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 관람객들로 '복적'

공룡 나이트사파리, 별빛을 담은 라이트가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인기 ... 설 연휴 특별 행사 열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겨울 별빛 축제'를 1월 27일까지 서문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개최된 별빛 축제는 개장 열흘 만에 15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별빛축제 펼쳐지고 있는 서문 나무도감원 일대에는 흑두루미 등지에서 공룡이 깨어나면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또한 하트터널, 달그림자 등 포토존들이 마련돼 있어 겨울밤 산책코스도 안성맞춤이다. 습지센터로 들어오면 자연소재와



조명을 활용한 화이트가든 또한 관람객들에게 인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에서는 매주 주말과 설 연휴 16시

와 19시에 눈을 땄 수 없는 '깜짝 미술쇼 흥길동전'과 '용용아저씨'가 펼쳐지고, 임체영상관에서는 매주 다른 영화를 상영하는 가든 감성 시네마가 상영되고 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상·하의 한복 착용자(개량한복 포함)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연휴 관람객들을 위해 전통놀이 체험·덕담스튜디오·복을 부르는 가훈 쓰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들도 마련했다.

정수현 기자

출/판/기/념/회

서갑원 예비후보 '반보 앞서간 노무현...' 출간

3000여명 운집... 총선 승리 의지 다져



서갑원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보 앞서간 노무현의 반보 뒤에서 정치를 배우다'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12일 서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전남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우석홀)에서 '반보 앞서간 노무현의 반보 뒤에서 정치를 배우다'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태년 국회의원, 배기산·정청래 전 의원, 시·도 의원, 고문단을 비롯해 김규곤 승산교회 담임목사, 정재계, 체육계, 종교계 인사 등 지지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회찬 민주당 당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송영길·김부겸·우원식·박광온·서삼석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여사제 SD원장 등이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서리, 유은혜 교우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전을 보내 축하하는 마음을 보였다.

2부 행사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사회로 강원국 노무현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과 서 전 의원의 북 토크쇼가 진행됐다. 정 전 의원의 재치 있는 입담과 강 전 비서관의 진중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강 전 비서관은 "책을 읽는 내내 서갑원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 책은 단순히 정치행사를 위해 제작된 책이 아니다. 베스트셀러로도 손색없다"고 책을 읽은 소회를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 전 의원은 "이 책은 '저와의 소중한 일들도 작은 역사가 될 것'이라며 기록으로 모아주시길 당부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며 "또 대통령의 참모이자 동지로서 배운 정치를 통해 다시 새로운 길을 가려는 저의 굳건한 다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책이 노무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 권징생 선생님의 말처럼 나무에게 미안한 책이 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철새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다면, 순천만으로 오세요"

순천만 습지,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순천만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 '철새야, 어디까지 왔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 '철새야 어디까지 왔니?'는 순천만습지에 찾아오는 순천만의 귀한 손님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가창오리,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을

탐조하는 프로그램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운영된다.

탐조 프로그램은 순천만습지 겨울 철새·흑두루미 탐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두루미 및 겨울 철새 탐조, 철새 미니도감 만들기, 흑두루미 소망 편지 작성 등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들의 생동

감 넘치는 해설과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순천만 습지 관계자는 "겨울철 순천만을 찾는 탐방객들이 흑두루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 철새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로서의 순천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순천만보전과(061-749-6091)로 문의하면 된다.

전효성 기자

순천만 겨울 탐조프로그램

철새야, 어디까지 왔니?

기간: 2020년 1월 ~ 3월
대상: 순천만습지 탐방객
장소: 순천만습지 일원

탐조일	시간	장소
1월 25일(토)	10:00 ~ 12:00, 14:00 ~ 16:00	순천만습지 탐방로
1월 26일(일)	10:00 ~ 12:00, 14:00 ~ 16:00	순천만습지 탐방로

내용: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가창오리,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철새 관찰, 미니도감 만들기, 흑두루미 소망 편지 작성 등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들의 생동감 넘치는 해설과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문의: 순천만보전과(061-749-6091)

※ 사전에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 061-749-6091

순천시, 예비 시민작가 발굴 눈에 띄네

일상의 삶 써 내려간 시민작가 10명, 출판기념 누려

순천시는 지난 11일(토) 시민들의 평범한 삶과 사라져가는 순천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내는 '예비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10권의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도서 전달식에는 시민작가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시민작가들이 펴낸 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원고와 책으로 출판된 소감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는 순천시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순천 이야기를 남기고자 시민들의 원고를 책으

로 출판해 주는 프로젝트로, 2019년 10월부터 2주간 수필과 단편소설 분야의 원고를 접수받아 총 10권을 선정했다.

이번에 시민작가의 책들은 순천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과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겪은 일 등 다양한 소재의 수필(8편)과 단편 소설(2편)로 출판됐다.

자신의 책을 처음 출간하게 된 한 시민작가는 "삶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책 출판을 이루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소감을 전했다.

출판된 시민 작가의 책들은 삼산도서관 1층 '순천사람들이 쓰고 함께 읽는 책' 코너에 전시될 예정이며, 순천시립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순천시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은 "올해도 글쓰기 프로그램, 예비 작가 출판 지원 등 다양한 1인 1책 쓰기 프로그램

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인문학 소양이 높은 순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정수현 기자

기생충박물관, 겨울방학 이색 프로그램 눈길

'나도 기생충학자' 지난 8~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기생충에 대해 배우고 실제 진단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체험교육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총 150분)까지 총 2회 진행했다. 대회 1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연구 가운을 입고 전시해설 관람, 기생충병연구소 견학, 기생충 진단과정 체험, 현미경 검정 체험, 조별 토론 및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학부모참관하여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견학 체험일 회장은 미래의 어린이 학자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과학 및 의학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어린이들

이게 생생한 체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기초 의학 이해와 과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생충박물관의 '나도 기생충학자!' 프로그램은 2019년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매 방학기간 중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전효성 기자

순천광양축협-나눔축산운동본부

연말 맞아 '이웃사랑 돼지고기 나눔'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돼지고기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지난 30일 순천시 관내 사회 복지시설 성신원 외 7개소에 28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은 "한돈에 대한 소비자가 성원에 감사표시로 연말맞이 취약 계층에 돼지고기를 기부하게 됐다"고 이번 나눔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축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웃사랑 돼지고기'를 전달받은 성신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순천광양축협에서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는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져 보다 따뜻한 연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해 준 순천광양축협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잘 전달하고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성신원을 방문, '이웃사랑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가진 순천광양축협.

한편,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2012년

부터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이문석 기자

장만채 예비후보 '나의 삶 나의 생각' 출간

철학과 비전 담아 ... 3천여명 지지자와 시민들 참여



더불어민주당 장만채 국회의원(순천) 예비후보의 '나의 삶, 나의 생각' 출판기념회가 9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909호에서 3천여명의 지지자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총선 출정식을 겸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장예우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축제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부겸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연예인 김수미씨 등이 축하 영상을 전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이회찬대표와 서삼석 전남 도당위원장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이날 행사는 내외빈의 축사와 축하인사, 장만채가 걸어온 길의 영상 상영에 이어 2부에서는 여성장애인 학부모연대 문상엽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북 콘서트가 진행되고, 3부에는 순천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여성 5인조 '연지관지'의 축하공연에 이어 참석자 전원에게 촛불을 들고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합창으로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만채 후보와는 14년전 순천대 총장 취임식 때도 축하드리러 순천까지 내려갔을 만큼 오랜 인연이 있다"며 "장만채

전 교육감은 과학자이고 교육자이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다른 호남사랑과 사명감으로 호남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만채 전 교육감의 교육과 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실천철학은 우리 공동체 자녀들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장만채 후보가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 크게 쓰이길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 장만채의 꿈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만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오신 위대한 순천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저는 낮은 자세로 이 현명한 선택을 존중하고,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교육·생태·문화의 도시 순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광주이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대학원에서 최연소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장만채 예비후보는 순천대 총장과, 제16, 17대 전남도교육감, 순천 YMCA 이사 등을 역임했다.

곽승호 기자